

제 1 차 Young 아시아 토질공학회 참가기

이 인 모*

1. 서 언

Young Geotechnical Engineers Conference (YGEC)는 국제토질공학회(ISSMFE)의 한 지부로서 세계에서 비교적 젊은 토질공학자들이 모여 자기의 논문도 발표하고 차세대 토질공학을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며 얼굴을 익히게 할 목적으로 창설된 학회로써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학회를 몇 번에 걸쳐 개최해 왔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까지 계속 이 YGEC의 학회개최를 미루어 오다 일본에서 이 학회를 개최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방콕의 아시아 공과대학(AIT)에서 열리게 되었다. 원래는 YGEC에 참석할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을 두어 만 35세 미만의 토질공학도에게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나 본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확한 나이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별히 일본이 학회를 열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방콕의 AIT에서 열리게 된 것은 일본에서의 체류비가 워낙 비싸서 AIT로 첫 개최지를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학회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일본토질공학회에서 부담하였다는 뒷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 제 1 차 YGEC 회의

제 1 차 YGEC는 전술한 대로 방콕 AIT에서 1991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열렸다. 본 회의는 원칙상 아시아 각 나라에서 대표로

파견한 1~5명의 Speaker가 'Invited Base'로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본 학회의 Organizing Chairman은 AIT의 Balasubramaniam 교수가, Secretary는 역시 AIT의 Yuske Honjo 교수가 맡았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Organize 및 모든 진두지휘는 Honjo 교수가 맡아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학회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 Conference Theme : 아시아에서 시공에 관련된 토질공학적 문제

○ 참가국 : 버마, 시리아,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시아의 전 국가

○ 3 Key Note Lectrues

○ 35 Technical Papers

○ 1 Day Field Trip

○ 2 Discusson Sessions

Key Note Lectures는 세교수가 발표하였다. 첫번째는 일본의 Ohta 교수로서 점토의 구성방정식에 대한 발표, 두번째는 Bala 교수로 Soft Clay에 대하여, 세번째는 태국출 라롱콘 대학의 Sambhandharaksa 교수가 주로 방콕지역에서의 말뚝시공상의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본 회의의 기본목적이 논문발표를 통한 학술교류에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아시아의 젊은 엘리트들이 서로 모여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에도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서로 식사도 하며 유쾌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 특히 금요일밤의 Farewell Party는 방콕 시내에 있는 강에서 배를 3시간여 타면서 배 위에서 식사를

* 정희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부교수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인상에 남는다.

필자는 한국대표로 초청을 받아 Invited Paper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9개의 Technical Session 중 마지막 Session의 좌장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필자의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 A Seismic Design of Foundation Structures in the Low Seismicity Area : The Case of Korea

3. 소감 및 제언

본 회의는 비슷한 나이의 학자들이 60여명의 작은 Group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끼 자기한 맛에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논문을 발표하는 Speaker는 등록비와 숙박비를 면제해 주었

기 때문에 경제적인 큰 부담도 없었다. 역시 일본, 대만에서 많이 참석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도 몇명 참석한 것을 볼 때 우리도 차후에는 적어도 2~3명은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상에 남는 것중 하나는 AIT의 Bala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Session에 참석하여 발표를 경청하므로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Closing Ceremony의 Speech도 그가 하게 되었는데, 특히 우리 토질공학이 장차 나아가야 할 지표를 몇가지로 보여주며 그의 말을 마쳤다.

한가지 제언은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에 부응하여 학술활동에도 신경을 더욱 써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젊은 공학도의 경제사정을 생각해 볼 때 차후의 YGEC 참석자에게는 학회에서 왕복교통비정도의 Support를 하여 젊은 공학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위도 선양함이 옳은 듯 하다.